

광주 서구, 8년 묵은 '매월 자동차 매매 단지' 갈등 풀었다

일부 매매단지, 진출입 도로 폭 조례 규정 못 미쳐 2012년부터 단기간 형평성·적법성 갈등으로 번져 공론화·현장조사 거쳐 조례 개정 건의...민원 해소

광주시 서구가 매월자동차매매단지 내 진출입 도로 폭 문제로 8년째 이어져 온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는 등 규제 개혁·적극 행정 추진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4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매월자동차매매단지 내 6개 단지 중 4개 단지는 진출입로 폭이 조례에서 정해진 규격에 어긋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4월부터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1개 단지는 출입로 폭이 9m에 못 미쳤으며, 나머지 3개 단지는 일부 구간이 최대 2m 가량 부족했다. '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조례'(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조례)에 따라 자동차매매소 전시장은 폭 12m(양복 2차로·양측 인도)의 도로와 접해야 한다.

일부 단지의 진출입로 폭 미달 문제가 불거지자, 행정 형평성·적법성 등을 놓고 단기간 갈등이 8년째 이어졌다. 서구가 해당 단지에 시정 명령을 거듭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서구는 올해 2월18일자로 매매단지 4곳에 대해 신규 사업자 신청허가 및 기존 사업자간 양수·양도 처분을 전면 중단했다. 제재 성격의 행정조치였다. 이후 서구는 구정장 면담과 입주 영업자 대상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었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광주시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시도 현장 점검을 벌여 현 도로 폭

을 유지하더라도 교통 혼잡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동차 전시장에 인접한 도로 폭 규정을 12m에서 8m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시 의회를 통과,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갈등과 민원이 해소되고 자동차매매단지 영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서구는 기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6곳 조감도.

한편, 매월자동차매매단지는 6개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 단지에 총 19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다. 서선욱기자



'전국금속노조 결의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노조파괴법을 파괴하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04.

"경찰 과학수사, '30년 마음의 빛' 이춘재 검거 큰 역할"

이춘재 연쇄살인 언급... "결정적 역할 해"

경찰이 72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이춘재를 언급, "과학수사 발전은 30년 간 마음의 빛이었던 연쇄살인마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청사에서 72주년 과학수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과학수사의 날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 내 감식과 신설을 기념해 지정됐다. 이날 경찰청은 ▲이천 불류창고 화재 ▲춘천 의암댐 실종자 수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경 등을 언급하면서 "올해

과학수사 현장은 어려움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과학수사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고 바라보면서 "과학수사 발전은 억울한 법인의 누명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사권 구조 조정과 관련해 "진문성,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 경찰 책임수사의 당위성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증거 중심 인권수사를 이끌어 온 과학수사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취득한 과학수

사 증거가 법정에서 흠결 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게 수사지원을 넘어 과학치안까지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요원 대상 심리 지원 등 복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화재 감식, 프로파일러, 영상 분석관 등 세부 전문 분야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과학수사 대상인 최영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한국화재조사학회, 이춘호 강원경찰청 경감에게 수여됐다. 신봉우기자

선거 때 식사 제공받은 유권자 30명에 '과태료 폭탄'

1인당 36만원~68만원까지 총 1401만6000원 과태료 부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1만6000원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식사자리를 마련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법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공사장서 600kg 철근자재 추락...60대 일용직 의식불명

인근 병원 이송됐으나 의식 안 돌아와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의 머리 위로 약 600kg에 달하는 철제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노동자는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주

택 신축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머리에 철제 자재를 맞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동식 크레인 기사가 철제 자

재를 지상 6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가 떨어져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는 잘 됐는지, 안전관리인은 따로 있었는지, 크레인 기사한테 과실은 없는지 등을 수사 중인 단계"라며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